

한국계 미국 작가들이 본 이승만

김옥동*

1. 서론
2. 이민 노동자 백광선이 본 이승만
3. 친일 여성 박인덕이 본 이승만
4. 최초의 한국계 미국 작가 강용홀이 본 이승만
5. 김난혜가 본 이승만의 여성 편력
6. 피터 현의 이승만 비판
7. 마거릿 배가 전해들은 이승만의 정치 야욕

한국 현대 정치사의 주역이요 제1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12년 동안 권좌에 머물러 있던 우남 이승만에 평가는 학자들에 따라 크게 엇갈린다. 일군의 학자들은 이승만을 권력지향적인 독재자로 평가하는 반면, 다른 일군의 학자들은 그를 그 나름대로 한국 민주주의에 기여한 인물로 평가한다. 한국계 미국 이민 자서전 작가들이나 한국계 미국 작가들이 이승만을 바라보는 시각은 국내 학자들의 일반적 평가와는 크게 다르다. 즉 그들의 경우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이다. 박인덕과 백광선 같은 여성 작가들은 이승만을 긍정적이고 호의적으로 평가하는가 하면, 강용홀과 김난혜와 피터 현 그리고 마거릿 배 등은 이승만을 무능하고 권력지향적인 정치가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강용홀은 이승만이 한국의 정치적 발전보다는 개인의 정치적 야심을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을 들어 그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김난혜는 결혼을 앞둔 이승만이 자신에게 접근하는 등 그의 여성 편력과 도덕성을 문제 삼는다. 피터 현은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헌신하는 다른 독립운동가들과는 달리 이승만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운다는 점을 들어 그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마거릿 배는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박용만과 갈등을 빚었을 뿐만 아니라 교포 사회

*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명예교수.

를 분열시키는 낱앗다고 비판한다. ‘한국계 이민’ 작가들이나 ‘한국계 미국 문학’ 작가들은 이승만과는 개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전혀 없거나 비교적 없기 때문에 그에 관한 평가가 좀더 객관적이고 균형 잡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을 한국계 미국 작가들이 바라보는 이승만에 대한 견해를 밝힘으로써 그 동안 한국 학계에서 이루어진 이승만에 대한 평가에 새로운 빛을 던져줄 것이다.

주제어: 이승만, 자서전, 한국계 미국 이민 자서전, 한국계 미국 문학

1. 서론

일제 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주석을 역임하고 대한민국 건국과 더불어 제1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을 비롯하여 세 번에 걸쳐 대통령을 역임한 우남(雲南) 이승만(李承晩)에 대한 평가는 국내외 학자들 사이에서 크게 엇갈린다. 한편에서는 그를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권력에 눈이 먼 독재자로 폄하한다. 그에 대한 엇갈린 평가는 흔히 이승만과 백범(白凡) 김구(金九), 이승만과 도산(島山) 안창호(安昌浩), 이승만과 박용만(朴容萬) 등의 이항대립적 관계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그런데 이러한 이항대립적 관계에서 긍정적 평가는 거의 언제나 뒤쪽의 인물로 기울어진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계 미국 이민 자서전(Korean American Immigrant Autobiography)’ 작가들이나 ‘한국계 미국 문학(Korean American Literature)’ 작가들이 미국에서 이승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만나거나 그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들게 되면서 그를 어떻게 평가하였는지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그들의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호의적인 경우도 없지 않지만 대체로 부정적이다. 이들 작가들은 20세기 초엽 고국을 떠나 낯선 이국땅 미국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민을 갔거나 학업을 위하여 유학을 간 사람들로서 정치에는 비교적 무관심한 인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이해관계에 얽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좀더 객관적이고 균형 잡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승만에 대한 평가를 밝히는 데 필자는 좁게는 ‘한국계 미국 문학’, 넓게는 ‘아시아계 미국 문학’에서 크게 이바지한 작가들의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특히 ‘한국계 미국 문학’의 집을 짓는 데 초석을 세운 작가로 평가받는 강용홀(姜鏞訖, Younghill Kang)을 비롯하여 미국에서 주로 농장 일을 하면서 이민 생활을 한 백광선(白廣善, Mary Paik Lee), 대표적인 신여성의 한 사람으로 귀국하여 교육 사업을 펼친 박인덕(朴仁德, Induk Pakh), 예술가로서 미국 사회에서 비교적 지적 수준이 높은 이민자로 살아 온 김난혜(金蘭兮, Lanhei Kim Park), 일제 강점기 중국과 미국에서 독립운동가로 활약한 현순(玄楯)의 아들 피터 현(Peter Hyun), 그리고 역시 독립운동가인 권도인(權道仁)과 이금례(李今禮)의 딸로 하와이에서 태어나 자란 마거릿 배(權貞淑, Margaret K. Pai) 등이 미국에서 영문으로 출간한 자서전이나 자서전적 작품을 논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2. 이민 노동자 백광선이 보는 이승만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20세기 초엽 미국에 이민 온 초기 이민자 가운데 한 사람인 백광선의 자서전 『조용한 오디세이』에서 찾

아볼 수 있다. 미국 이민자로서는 보기 드물게 백광선은 이승만을 ‘우리의 옛 친구’라고 부르면서 그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Lee 1990, 72). 뒷날 ‘메리 백 리’라는 영어 이름을 사용하는 백광선은 고종(高宗)이 대한제국의 황제로 재임하던 광무(光武) 4년, 즉 1900년 8월에 평양에서 태어난다. 초기 이민자들이 흔히 그러하듯이 그녀의 가족도 이민 오기 전에 기독교와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무척 많이 받는다. 백광선이 부모를 따라 하와이에 건너간 것은 러일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이었다.

백광선의 자서전 『조용한 오디세이』는 이 자서전을 편집한 수창 찬(Sucheng Chan)의 지적대로 한인 미국 이민자를 비롯하여 소수 인종, 여성, 가난한 육체노동자들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찬이 이 자서전에 ‘미국에서 산 개척자적 한국 여성’이라는 부제를 붙인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Chan 1990, xiv). 20세기 초엽 미국에 건너간 백광선이 여성 이민자로서 그야말로 ‘개척자적’ 삶을 살았다. 그러나 이 자서전은 이승만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도 자못 중요하다.

‘조용한 오디세이’라는 자서전의 제목 그대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을 거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뒤 주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서부 지방에서 유랑 생활을 하다시피 하며 살아 온 백광선의 가족은 안창호와 이승만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과 비교적 가깝게 알고 지낸다. 그러나 그녀의 가족은 안창호보다는 이승만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백광선은 기미독립운동 직후 전개된 민족운동을 말하는 장면에서 이승만을 처음으로 언급한다. 1919년 이후 독립 운동이 좀더 조직적으로 전개되기 시작되었다고 말하면서 상하이(上海) 임시정부를 대표적인 예로 든다. 이 점과 관련하여 그녀는 “임시정부 대표들이 1919년 4월 23일에 모여 이승만 박사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Lee 1990, 61) 하고 밝힌다. 그러나 엄

격히 말해서 이승만은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이 아니라 임시정부의 행정수반인 국무총리에 추대되었을 뿐이다. 대통령제가 채택된 것은 그해 9월 통합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이다.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교육을 별로 받지 않고 노동에 종사해 온 백광선은 이렇게 교민 사회에 퍼져 있는 정보를 여과 없이 받아들인다.

어찌 되었든 『조용한 오디세이』에서 백광선은 남편 이흥만(李興萬, Antonio Eduardo Lee)과 이승만이 ‘각별한 친구’ 사이였다고 밝힌다. 그녀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만난다. 이흥만은 1905년 멕시코 이민선에 몰래 숨어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도착한 초기 이민자 중의 한 사람이다. 농장주의 도움으로 그는 멕시코시티에서 학교를 다니고 농장에서 통역관으로 근무하던 중 아내와 사별한 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샌프란시스코로 거처를 옮긴다. 이때 “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친구를 많이 사귀었는데 그 중 한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남한의 대통령이 되는 이승만이였다”(Lee 1990, 65) 하고 밝힌다. 그러나 이흥만이 무려 열일곱 살이나 나이가 많은 이승만과 이렇게 ‘아주 특별한’ 친구 사이였다는 사실이 좀처럼 믿어지지 않는다. 아마 이승만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흥만에게 친절하게 접근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어찌 되었든 백광선은 남편이 뒷날 한국의 대통령이 되는 이승만을 그렇게 가깝게 알고 지낸 사실에 자못 긍지를 느낀다.

백광선은 1920년에 ‘우리의 옛 친구’인 이승만이 한국 교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또한 지난 몇 해 동안 자신을 도와 준 것에 대하여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하여 캘리포니아 주 월로우스를 방문하였다고 말한다. 이 무렵 백광선은 이흥만과 결혼하여 월로우스에서 쌀농사를 짓고 있었다.

방문 기간 동안 이승만은 월로우스에 있는 낡은 우리 집에서 우리와 함께 머물렀다. 목욕실도 없고 전화도 없는 등 우리는 그에게 환경이 누추하여 송구스럽다고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는 웃으면서 자신도 과수원에서 일하던 옛날 생각이 나서 기분이 좋다고 대답하였다. 일 년 뒤 두 번째로 이곳을 방문하였을 때 그는 피곤하고 지쳐 보였다. (……) 몇 해 뒤 그가 남한의 대통령이 된 다음 그와 그의 부인이 로스앤젤레스에 고별 방문 차 왔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Lee 1990, 72-73)

백광선이 월로우스를 방문하는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승만이 그곳을 방문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시기적으로나 사실에서 조금 맞지 않는 것이 있다. 만약 이승만이 월로우스를 방문하였다면 1920년과 1921년이 아니라 1919년과 1921년일 것이다. 이승만은 1919년 11월 상하이 임시정부 행정 수반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할 때, 또는 1921년 8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린 듯하다.

그러나 수척 찬도 지적하듯이 이승만이 과수원에서 일하였다는 것은 그 자신이 만들어낸 ‘신화’임에 틀림없다. 이승만은 한국 이민자들에게 일체감을 심어 줌으로써 교묘히 재정적 후원을 받아내는 솜씨가 탁월하였기 때문이다. 이승만에 관한 어떤 전기에도 그가 이 무렵 과수원에서 일하였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는다. 그는 독지가의 재정적인 도움과 한국 문제에 관하여 강연을 하여 학비를 충당하였을 뿐이다. 이 점에서 이승만은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농장에서 직접 노동을 하면서 함께 일하는 한인 노동자들에게 “오렌지 하나를 따도 조국 생각이요, 한국 사람임을 생각하라” 하고 무실역행(務實力行)의 도를 가르친 안창호와는 사뭇 다르다.

백광선은 위 인용문 마지막에서 이승만이 제1공화국의 초대 대

통령에 취임한 뒤 아내 프란체스카와 함께 미국에 고별 방문을 올 때 로스앤젤리스에 잠시 들린다고 밝힌다. 이때 학생 시절부터 이승만의 열렬한 후원자인 재미 사업가 리오우 송(Leo S. Song)이 자신의 집에서 이승만 부부를 위하여 잔치를 베푼다. 송의 집에서 모였지만 실제로는 동지회(同志會)가 주최하는 공식 모임과 다름 없었다. 이때 이승만이 녹두묵을 좋아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백광선은 그를 대접하기 위하여 특별히 녹두 50파운드를 구입하여 꼬박 사흘이나 걸려 묵을 만든다. 잔치 때 송 씨 부인을 시켜 이승만에게 묵을 먹어 보라고 권하자 두 접시나 먹었다고 적는다. 메리는 “그것이 [그 사람한테서] 내가 받은 답례이다”(Lee 1990, 102) 하고 말하면서 자못 흐뭇해한다.

3. 친일 여성 박인덕이 본 이승만

한국의 신여성을 대표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 박인덕은 친일파라는 달갑지 않은 꼬리표가 늘 따라다닌다. ‘나가가와(永河仁德)’로 창씨개명을 한 그녀는 일제 강점기 조선임전보국단(朝鮮臨戰保國團), 조선교화단체연합회(朝鮮敎化團體聯合會), 조선언론보국회(朝鮮言論報國會) 등에서 친일 인사로 활약한다. 그리하여 강정숙(姜貞淑)은 이러한 박인덕을 두고 ‘황국 신민이 된 여성 계몽 운동가’라고 부른다 (강정숙 1993). 이렇게 박인덕은 일제 강점기에 친일 행동을 하며 반민족 대열에 앞장섰다면, 해방이 되고 나서는 우익과 친미의 대열에 앞장선다.

일본이 마침내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한 뒤 존 하지(John R. Hodge) 준장이 이끄는 미 육군 제24단이 인천에 상륙하자 박인덕

은 일본을 찬양하던 입으로 이번에는 미국을 찬양한다. 그녀는 1945년 12월 애국여성단체의 정치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활약하는가 하면, 미군정의 정책에 적극 협조한다. 신탁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반탁 운동 모임이 총집결하자 여성들도 우익 여성 단체인 독립촉성애국부인회로 결집한다. 이때 박인덕은 정보 부장으로 선임되어 다시 한 번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다. 이 단체가 주최한 전국 부인대회에서 「민주주의와 여성」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여러 회의에서 사회자로 맹활약을 한다. 더구나 미 군정청에 의하여 제1회 국제부인대회에 남한 대표로 미국에 파견되어 미국에서 반탁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데 일익을 맡는다.

또한 박인덕은 한편으로는 미국을 지나치다 싶을 만큼 무비판적으로 칭찬을 늘어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승만을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한다. 그녀의 이러한 태도는 미국에서 영문으로 출간한 자서전 『구월 원숭이』와 『인시(寅時)』에서 쉽게 엿볼 수 있다. 가령 박인덕은 “미국의 군인들과 한국인들 사이에는 우호적인 감정이 돈독하였다”니, “미군 병사들은 언제나 여성들과 여자아이들에게 자상하였다”니(Pahk 1954, 215-16) 하고 말한다. 그러가 하면 “남자건 여자건 어린아이이건 미국 병사들은 또한 인간의 삶에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다”(Pahk 1954, 216) 하고 밝히기도 한다. 그러나 미군정 시절 미군한테서 크고 작은 괴로움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언급은 자칫 모욕적인 발언처럼 들릴 것이다. 로버트 오라 스미스(Robert Aura Smith)가 한 서평에서 박인덕이 “미국인을 가장 최선의 상태로 묘사하고 있다”(Smith 1954, 34) 하고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이 무렵 박인덕의 친미 행위는 이승만에 대한 태도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녀는 상하이 임시정부를 이끈 김구보다는 미국에서 활약한 이승만에 훨씬 더 호의적이다. 박인덕은 이승만을 ‘한국 통일

의 상징'으로 높이 평가한다.

조선의 군주들과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지배를 받으며 한국 국민들은 그 동안 그들의 창의력을 이용하도록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의 창의성은 출구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영도력 아래 공화국을 도울 수 있는 한국인이려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박사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있지만 누가 뭐래도 그는 한국 통일의 상징이며, 오늘날 한국 공산주의자들에게 가장 증오 받고 있는 사람이다. 공산주의자들이 그토록 신랄하게 증오하는 사람이라면 민주 한국에 훌륭한 사람이다. (Pahk 1956, 269)

이 인용문을 좀더 꼼꼼히 살펴보면 박인덕의 논지에 논리적 비약이 심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무엇보다도 먼저, 500여 년의 조선시대와 36년의 일제 강점기를 견디면서 한국 국민이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였다는 박인덕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왕권과 군국주의에서 한 국민을 물론이고 한 개인이 창조성을 발휘하기란 무척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있는 제1공화국에 이르러 비로소 국민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민의 창의성 발휘는 국민이 왕권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자유 민주주의의 지배를 받느냐, 또는 일본 군국주의나 제국주의적 식민주의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자유 민주주의의 지배를 받느냐 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일 뿐 이승만의 제1공화국과는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이승만이 아닌 다른 사람이 공화국을 영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경우 국민들은 창조성을 훨씬 더 발휘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더구나 박인덕은 창의성에 대한 언급에서 논리를 비약시켜 이승의 영도력 아래에서는 누

구나 공화국을 도울 수 있다고 밝힌다. 창의성과 공화국을 돕는 것 사이에는 논리적으로 이렇다 할 상관성이 없다. 그런데도 국민의 창의성을 언급하다가 갑자기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있는 지금에는 누구나 원하면 공화국을 도울 수 있다고 논리를 비약시킨다.

또한 위 인용문에서 박인덕의 “이 박사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있지만 누가 뭐래도 그는 한국 통일의 상징이다”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승만이 ‘한국 통일의 상징’이기는커녕 오히려 한반도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다고 지적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다. 광복 이후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의 대결 구도와 국내 정치 세력의 좌우 분열로 마침내 분단으로 치닫고 말았지만, 이러한 와중에도 몇몇 정치가들은 분단을 막고 통일 독립 정부를 수립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구와 김규식(金奎植)이고 그들은 남북 협상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와는 달리 이승만은 1946년 6월 정읍(井邑) 발언부터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승만의 이러한 입장에 좌익 세력은 물론이고 김구와 김규식 등 일부 우파계열의 정치가들도 반대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좌우합작 운동을 벌였던 김규식은 중도파 세력을 규합하여 남북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운동을 펼쳤다. 이승만과 함께 좌파에 대항하여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주도하던 김구 세력도 이승만이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자 결별을 선언하고 김규식 등 중도파 세력과 연합하여 통일정부 수립 노선을 지지하였던 것이다.

더 나아가 박인덕이 위 인용문의 마지막에서 주장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승만에 대하여 그녀는 “한국 공산주의자들에게 가장 증오 받는 사람”이며 “공산주의자들이 그토록 신랄하게 증오하는 사람이라면 민주 한국에 훌륭한 사람이다”(Pahk 1956, 269)라고 밝힌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증오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한국

민주주의에 훌륭한 사람이라는 주장도 논리적 비약으로밖에는 볼 수 없다. 더구나 이승만이 공산주의자 추출이라는 이름으로 적지 않은 애국자들을 탄압하고 암살하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박인덕은 이승만의 이러한 행적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

이승만에 대한 박인덕의 호의적 평가는 비단 『구월 원숭이』에 그치지 않고 두 번째 자서전 『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엿볼 수 있다. 이 책에서도 박인덕은 이승만과 제1공화국을 자못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35년 동안 계속된 일본 통치를 겪은 뒤 우리 한국인들은 우리의 독립 정부에 대하여 행복해 하였다. 일본에서 해방된 뒤 첫 민주 정부가 이승만 박사의 영도 아래 수립되었다. 1950년 6월 한국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손에서 재앙을 맞이하였다. 전쟁의 참화로 국민들이 참을 수 없을 만큼 피를 흘렸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남았고, 우리 앞에는 최상의 삶이 여전히 놓여 있다. (Pahk 1965, 111)

박인덕은 이 인용문에서도 한국 국민이 동전상잔의 한국전쟁에서 온갖 고통과 시련을 겪었지만 그러한 역경을 견뎌내고 곳곳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이승만의 영도력 때문이라고 넌지시 내비친다. 또한 “우리 앞에는 최상의 삶이 여전히 놓여 있다” 하고 밝히면서 이승만의 영도력이라면 어떠한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는 낙관주의를 피력한다.

박인덕은 『인시』를 이승만이 권좌에서 물러난 뒤에 출간하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그가 몰락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위 인용문 바로 다음에 이승만의 실각과 그 이유를 나름대로 지적한다.

1960년의 부정 선거에 반발하는 학생들의 영웅적인 행동이 있는 뒤 이승만 박사는 권좌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공평하게 말해서, 내 견해로는 이 박사는 위대한 한국인 중의 한 사람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마 독자들은 그렇다면 그의 정부가 왜 실패를 했느냐? 하고 물을 것이다. 내가 믿기로는 그 사람은 적합한 인물들을 적재적소에 등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신임을 받았지만 지위와 돈을 탐하는 사람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룻밤 사이에 백만장자가 되다시피 하였다. 그가 이러한 업적 중에서도 그는 60만 명에 이르는 강한 한국 군대를 창설하였다. (Pahk 1965, 111)

이 인용문에서도 이승만에 대한 박인덕의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평가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박인덕은 이승만이 실각하게 된 원인을 인재를 잘못 등용한 탓으로 돌리면서 역시 그를 두둔한다. 그러나 12년에 이르는 이승만의 장기 집권 동안 그의 여러 행적으로 미루어보건대 박인덕의 이러한 주장에 선뜻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4. 최초의 한국계 미국 작가 강용홀이 본 이승만

백광선이나 박인덕과는 달리 다른 한국계 이민 자선적 작가들은 이승만을 그렇게 긍정적이고 호의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930년대 한국계 미국 작가로 미국 유수 출판사에서 영문으로 『초당』과 『동양 사람 서양에 가다』를 출간하여 미국 문단을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크게 이름을 떨친 강용홀은 그러한 사람 중의 하나이다. 의사가 될 생각으로 캐나다 선교사를 따라와 캐

나다 노바스코시아 소재 핼리팩스에 있는 델하우지대학에서 공부하다가 다시 미국에 건너가 보스턴대학교에서 이학학사를 받은 뒤 하버드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문학교육 석사를 학위를 받은 뒤 강용홀은 1920년대 말엽 뉴욕 시 허드슨 강변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기숙을 하고 있었다. 이때 그는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을 편찬하는 일을 하고 뉴욕대학교에서 동양학을 강의하면서 작품을 집필하고 있었다.

이 무렵 강용홀은 이 한인교회에서 뒷날 한국 정치계나 문화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동료 학생들이나 지식인들을 많이 만난다. 그가 만나는 사람들로써 오천석(吳天錫)을 비롯하여 황창하(黃昌夏), 조병옥(趙炳玉), 이철원(李哲源), 허진업(許眞業), 임창영(林昌榮), 정일형(鄭一亨), 윤성순(尹誠淳), 김활란(金活蘭), 안익태(安益泰), 조승학(曹承學), 윤치영(尹致暎), 최순주(崔淳周), 이병두(李炳斗), 장덕수(張德秀), 한승인(韓昇寅), 노재명(盧在明), 장리욱(張利郁), 박경호(朴慶浩), 윤홍섭(尹弘燮), 박(朴)마리아, 하(河) 플로렌스, 박인덕 등 그 이름을 하나하나 밝힐 수 없을 만큼 많다 (최병현 1992).

또한 이 무렵 한국 유학생들은 뉴욕 한인교회와 더불어 이 근처에 있는 인터내셔널 하우스에 기거하기도 하였다. 인터내셔널 하우스는 20세기 초엽 미국 간부 해리스 헨리(Harris Henry)가 창안하여 존 록펠러(John D. Rockefeller, Jr.)와 클리블랜드 도지(Cleveland H. Dodge) 가문의 재정적 후원으로 1924년에 처음 문을 연 외국인 전용 기숙사이다. 리버사이드 가에 위치해 있는 인터내셔널 하우스는 뉴욕 한인교회와 더불어 주로 동부 지방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인 유학생들이 자주 모이는 사랑방 같은 구실을 하였다. 뉴욕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다른 지방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도 뉴욕과 그 근교를 방문할 때는 으레 이 교회와

인터내셔널 하우스에 머물렀다.

강용홀이 이승만을 처음 만난 것은 뉴욕 한인 교회와 인터내셔널 하우스에 기속하고 있던 1920년대 말엽이다. 이 무렵 이승만은 유미조선학생총회(留美朝鮮學生總會) 또는 북미유학생총회(北美留學生總會)가 발행하는 영자 신문 《한국 학생 불리틴(Korean Students Bulletin)》의 자문 위원으로 활약하면서 이 교회에 가끔 들리곤 하였다. 또한 강용홀은 한인 교회에서 열리는 유학생들의 모임에서 이승만을 만나기도 하였다.

또한 1942년 미 육군의 섭외국에서 오리엔테이션 강사를 지내면서 미 육군에서 일본어 교육을 책임 맡고 있던 강용홀은 이해 5월 27일 뉴욕 시 타운홀에서 열린 한인 켈기대회에서 이승만을 만났다. “금수강산 내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마라 / 건강 지력 손상 하니 천치 될까 늘 두렵다”로 시작하는 「금주가」를 작사하고 작곡하여 관심을 끈 성악가 임배세(林倍世)가 노래를 불러 분위기를 돋운 뒤 켈기 대회가 시작하였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여류 소설가 펄 벅(Pearl S. Buck)이 사회를 보았고, 주요 연사로는 이승만을 비롯하여 오웬 래티모어(Owen Lattimore), 모리스 윌리엄(Morris William), 빈슨트 신(Vincent Shin), 그리고 강용홀 등이 참석하였다. 이렇게 몇 차례 미국에서 이승만을 직접 만난 강용홀은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1943년에 강용홀은 워싱턴에 있는 경제전(經濟戰) 위원회의 한국 및 만주 분과에서 수석 경제 분석가로 일하고 이듬해에는 뉴욕시에 있는 미 육군 교육국의 언어 자문관으로 일하였다. 그로부터 일 년 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강용홀은 미국 정부로부터 또 다른 임무를 부여받는다. 1946년 여름 그는 미군정청(USAMGIK)의 출판부장 자격으로 고국을 떠난 지 25년 만에 처음 한국에 돌아온다. 그가 한국에 돌아오게 한 장본인은 군정청의 책임을 맡은 존

하지 준장이었다. 평소 이승만을 탐탁하지 않게 생각한 하지는 미국에서 독립 운동을 한 서재필(徐載弼, Philip Jaison)과 문학가로 명성을 얻은 강용홀을 한국에 데리고 왔다. 물론 이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귀국한 것은 아니어서 강용홀은 1946년 여름에 한국에 도착하였고, 서재필은 그 이듬해 7월에 귀국하였다.

이 두 사람의 직책도 서로 달라서 강용홀은 미 군정청의 출판 부장의 자격이었고, 서재필은 미 군정청의 최고 의정관의 자격이었다. 강용홀은 미 군정청의 출판부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맡았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A. O. 카드를 가지고 있는 나는 항상 테러리스트들과 일본에서 훈련받은 한국 경찰로부터 신변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한편 서로 다른 정치 성향의 온갖 종류의 한국인들이 나의 미국인 동료들에게는 너무 부끄럽거나 거북하여 말하지 못할 정보를 나에게 주곤 하였다. (……) 이러한 이점으로 나는 한국 상황에 관하여 상당한 정보를 수집하여 다른 많은 사람처럼 장군들에게 보고할 수 있었다. (Kunitz 1955, 509)

강용홀은 미 군정청의 출판부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 1947년과 1948년에 걸쳐 제24군단의 민간 정보 부대의 정치 분석가와 자문관으로 일하였다. 1947년 7월 앨버트 웨드마이어 (Albert C. Wedemeyer) 중장이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한국의 상황을 살피기 위하여 서울을 방문하였다.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에 따르면 이때 강용홀은 웨드마이어에게 “한국은 이 세계에서 가장 지독한 경찰국가 가운데 하나이다”(Cumings 1997, 203) 하고 보고한다. 한국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은 바로 “소수의 배부른 지주와 배고픈 토지가 없는 사람 사이의

싸움”이라고 말하면서 “이 소수 집단이 오늘날 한국민주당을 통제하고 있으며, 대다수 일반 대중은 이 오래된 악습을 고치기를 원한다”(204) 하고 밝힌다.

그런데 강용홀의 이러한 신랄한 비판은 이승만에 대한 비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45년 9월에 송진우(宋鎭禹)를 비롯하여 김성수(金性洙), 장덕수, 조병옥, 윤보선(尹潽善) 등이 참여하여 고려민주당, 조선민족당, 한국국민당 등을 통합하여 만든 보수정당인 한국민주당은 이승만, 김구, 서재필, 이시영(李始榮), 문창범(文昌範), 권동진(權東鎭), 오세창(吳世昌) 등 임시정부 간부와 항일 독립운동가들을 영수로 추대하였다. 1946년 6월 3일에 처음 나온 이승만의 단독 정부론에 대하여 한국민주당은 신속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즉 일부에서는 무슨 역적질이나 한 것 같이 선전하니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승만을 옹호하고 나섰다.

또한 강용홀은 미국 CIA 보고서에서 직접 이승만이 미국과 유엔의 축복을 받아 러시아를 북에서 내쫓기를 원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런가 하면 강용홀은 이 무렵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끌리는 것은 공산주의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일본 식민주의 시대에 일본 앞장이 노릇을 한 사람들이 남한에서 다시 세력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해방 후 미군정이 일본의 식민주의 시대에 동포를 괴롭힌 장본인들을 정부 요직에 기용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 뒤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한국민주당은 신탁 통치를 반대하면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김구를 중심으로 한 한국독립당은 좌우 합작과 남북통일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이 해 5월 10일 남한에서 총선거를 실시하여 국회의원을 뽑았고, 같은 해 7월 20일에는 대통령 선거를 하여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뽑았으며, 해방 3주년을 맞아 8월 15일에 남

한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었다. 강용홀이 미국에 돌아간 것은 초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승만과 적잖이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 장군은 처음부터 강용홀과 서재필을 통하여 이승만의 정치적 야망을 견제할 의도였다. 1948년도 5월 《유엔 월드》지(誌)에서 강용홀은 「한국에서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어떤 느낌이 드는가」라는 글을 기고하였고, 이 글을 소개하는 대목을 보면 강용홀이 미국에서 과연 얼마나 큰 대접을 받고 있었는지 잘 알 수 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편집자는 그를 두고 “살아 있는 한국 사람 가운데서 아마 가장 유명한 사람일 것이다”(Editor 1848, 5) 하고 밝히고 있다. 강용홀은 귀국하자마자 기자들에게 이승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는 것을 보면 더더욱 그러한 생각이 든다.

나는 이승만 박사를 좋아하지 않으며 그 사람을 믿지 않는다. 그 사람은 정치가이고, 나는 한국 정치가이건 미국 정치가이건 모든 정치가들을 싫어한다. 나는 작가요 예술가이다. 예술가는 실리를 추구하는 정치가들의 싸움에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 (김옥동 2004, 86)

강용홀의 이 발언이 비록 하지 장군의 의중을 표현한 일종의 작전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작전치고는 너무 노골적이었다. 그 때문에 강용홀은 하지 장군뿐만 아니라 이승만으로부터도 반감을 샀다. 그런데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승만을 공격하기는 서재필도 마찬가지였다. 이승만의 전기를 집필한 로버트 올리버(Robert T. Oliver)에 따르면 서재필은 “한국 사람들은 비누 한 장 제대로 만들 줄 모른다. 그런데 어떻게 자치 정부를 가질 수 있느냐?”(Oliver 1955, 253) 하고 말하여 큰 물의를 빚었던 것이다.

강용홀은 1948년 《유엔 월드》지에 기고한 글에서 “보수 정치인들이 남한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면 아마 인플레이션이 거의 그렇게 만들 것이다”(Kang 1948, 20) 하고 말한다. 여기에서 그가 말하는 보수 정치인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이승만이다. 정권을 잡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승만을 강용홀은 “이탈리아의 검은 셔츠 대원과 히틀러의 갈색 셔츠 대운”에 빗대었다(Kang 1948, 21). 한편 강용홀은 이승만에 대해서는 비판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대신 김구식과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무렵 한국에서는 강용홀이 공산주의의 색채가 짙다는 풍문이 나돌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공산주의자이기는커녕 열렬한 반공주의자였으며, 이러한 풍문은 어디까지나 그의 명성에 흠집을 내기 위한 역선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승만에 대한 강용홀의 비판은 이번에는 문학 작품으로 이어진다. 1년 반 남짓 한국에 머물다가 1948년 봄에 미국에 돌아온 강용홀은 임기 보장 없이 다시 뉴욕대학교를 비롯한 몇몇 대학에서 강의를 맡는가 하면, 미국 전역을 누비고 다니면서 대학과 로터리 클럽 등에서 강연을 하기 시작한다. 이 무렵 강용홀은 『궁정의 살인(Murder in the Royal Palace)』이라는 장편 희곡을 집필하기 시작한다. 흥미롭게도 이 희곡 작품에서 그는 이승만을 비록 간접적이나마 신랄하게 비판한다.

이 희곡 작품은 이근삼(李根三)이 1974년에 월간 문예지 《문학사상》에 두 차례에 걸쳐 번역하여 실릴 때까지 일반 독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소재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다. 1970년 7월 서울에서 제37차 국제펜클럽대회가 열렸고, 강용홀은 귀빈 자격으로 이 대회에 초빙되었다. 이때 이근삼은 그로부터 이 희곡 작품을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고, 그로

부터 4년 뒤 두 차례에 걸쳐 《문학사상》에 연재하였다. 이 작품은 같은 해 6월 극단 민예(民藝)가 무대에 올리면서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강용홀의 ‘백조의 노래’하고 할 이 작품은 공민왕(恭愍王)이 집정하던 고려 말엽의 혼란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는다. 작중인물로는 공민왕을 비롯하여 흔히 요승으로 일컫는 신돈(辛旽)과 그의 애첩 반야(般若) 같은 역사적 인물 말고도 여러 허구적 인물들이 등장한다. 그런데 ‘4막 한국 희곡’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궁정의 살인』은 여러모로 해방 이후 한국의 정치 현실을 풍자한 작품이다. 한국계 미국 학자 월터 류(Walter K. Lew)도 지적하듯이 비록 고려 시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지만 이 작품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해방 이후 한국의 현대 정치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Lew 1990).

제1막 첫 장면에서 설명역(說明役)이 등장하여 “서기 918년에서 1392년에 걸쳐 지구 반대쪽 저 멀리 극동 한 가운데 고려라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하고 밝히고 있듯이 이 작품은 바로 고려시대, 그 가운데에서도 고려 말엽을 시대적 배경으로 삼는다. 공민왕이 집정하던 이 무렵은 안팎으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무척 어지럽던 시기였다. 북쪽에서는 홍건적이 말썽을 일으키고 남쪽에서는 왜구들이 약탈을 일삼았다. 나라 안은 나라 안대로 여간 혼란스럽지 않아서 곧 고려 왕조는 마침내 멸망하고 이성계(李成桂)에게 왕조를 내어주고 만다.

그렇다면 강용홀은 하필이면 왜 한국 역사에서도 가장 혼란기 가운데 하나라고 할 고려 말엽에서 소재를 취해 왔을까?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터이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정치의식을 꼽을 수 있다. 이근삼도 일찍이 지적하였듯이 강용홀이 이 작품을 쓴 것은 애국심과 관련 있다 (1974, 252-53). 40여 년 동안 미국에 살아 온 그는 이 무렵 고국에 남달리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 작품에서 강

용홀은 일본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서 해방된 뒤 한국의 무질서한 정치 현실을 공민왕이 집권한 고려 말기의 그것에 빗대었다. 적어도 이 점에서 이 작품은 한국의 현대 정치를 풍자한 정치적 우화로 읽어 크게 틀리지 않다.

강용홀은 『궁정의 살인』에서 이승만을 무력한 공민왕에 빗댄다. 이승만은 성격과 행동에서 공민왕과 적잖이 비슷하다. 예를 들어 대(代)를 이을 아들이 없다고 한탄하는 이승만은 후계자가 없다고 절망에 빠진 공민왕과 닮아 있다. 원래 이승만에게는 전처인 사이에 ‘봉수’라는 아들이 있었지만 그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병으로 사망하여 이승만은 그 아들을 늘 잊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승만은 마침내 83세 생일에 맞추어 당시 국회의장이자 효령대군(孝寧大君)의 후손인 이기봉의 아들인 이강석(李康石)을 양자로 삼았다. 이우(李鶚)의 아들 이청(李清)도 양자 후보에 올랐지만 왕정복고를 연상시킨다고 하여 거부되었다. 그 뒤 이강석이 자살하여 대가 끊기게 되자, 종친회의 권유로 이인수가 양자로 입양되었다. 또한 공민왕이 몽고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한 것처럼 이승만도 오스트리아 태생의 여성 프란체스카와 결혼을 한다.

그런가 하면 강용홀은 이승만의 연로한 나이를 문제 삼기도 한다. 강용홀은 이 무렵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대항 세력으로 참신한 젊은 세대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이승만 같은 노회한 기성 정치인한테 조국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하였던 것 같다.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에 취임할 때 그의 나이 벌써 73세를 넘기고 있었다. 강용홀로부터 이 작품의 타자본 원고를 건네받은 이근삼은 “그는 늘 한국을 걱정하였으며 언제나 한국 젊은이들에게 호감을 보였었다. 극중의 주인공, 만송과 하라녀(헬라녀)는 어느 면에서 오늘날의 한국의 젊은이와 흡사하다”(1974, 252) 하고 밝힌 적이 있다.

더구나 강용홀은 이 작품에서 이승만과 공민왕의 공통점을 무엇보다도 권력의지에 눈에 어두워 나라를 파탄에 빠뜨린 사실에서 찾는다. 특히 연로한 탓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승만은 직접 정사를 돌보지 않고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맡겨 나라를 그르친다는 점에서 편조/신돈에 정사를 맡기는 공민왕과 아주 비슷하다. 몽고말로 빠이엔티무르(伯顔帖木兒)라고 부르는 고려 31대 왕인 공민왕은 충숙왕(忠肅王)의 둘째아들로 1351년부터 1371년까지 재임하였다. 집정 초기에 그는 밖으로는 원(元)나라를 멀리하고 명(明)나라와 가까이하고, 안으로는 최 씨 무신정권의 잔재인 정방(政房)을 해체하는 등 정치를 바로잡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1365년에 원(元)나라의 위왕(魏王)의 딸 노국대장공주(魯國大長公主)와 결혼하였고, 왕비가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자 그녀를 추모하여 불사(佛事)에만 전념하면서 정치를 편조/신돈에게 맡겨 나라가 어지러워졌다.

한편 『궁정의 살인』에서 김 재상은 부통령 이기봉(李起鵬)과 여러모로 비슷하다. 김 재상의 아들 이름이 이기봉의 아호와 같은 ‘만송’이라는 사실도 여간 예사롭지 않다. 이기봉의 아내 이름이 박 마리아인 것처럼 만송이 결혼하는 아내도 서구식 이름인 ‘헬라녀’라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김 재상과 이기봉의 공통점은 비단 가족의 이름에 그치지 않고 행동이나 성격에서도 아주 비슷하다. 1945년 10월 이승만이 귀국하면서 서무담당 비서로 일하기 시작한 이기봉은 미국에서부터 이승만을 보필하던 측근 세력들을 물리치고 제2인자가 된 것은 그의 행정적인 자질과 충성심이 워낙 뛰어난 탓도 있지만 아내 박 마리아가 프란체스카와 아주 각별한 사이였기 때문이다.

『궁정의 살인』에서 악의 화신으로 등장하는 편조/신돈은 이승만의 측근 정치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강용홀은 이 무렵 내무부

장관을 지낸 최인규(崔仁圭), 또는 오늘날의 대통령 경호실장에 해당하는 경무대 경찰서장을 지낸 곽영주(郭榮周)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두 사람 모두 3·15 부정 선거와 4·19 학생혁명에 의하여 몰락하였다. 특히 곽영주는 5·16 쿠데타로 박정희가 정권을 잡자 ‘깡패 일소 정책’에 따라 이정재와 함께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승만의 신임 아래 막강한 절대 권력을 휘두른 이들 정치가는 여러모로 편조/신돈과 비슷한 인물이다.

5. 김난혜가 본 이승만의 여성 편력

한국계 미국 이민 작가 중의 한 사람인 김난혜(金蘭兮, Lanhei Kim Park)는 강용홀과는 아주 다른 관점에서 이승만을 평가한다. 김난혜는 이민 자서전 『중국인 기회』를 비롯한 몇몇 저서를 미국에서 출간하여 이름을 떨친 박노영(鮑詒榮, No-Yong Park)의 아내이다. 그녀는 남편이 사망한 뒤 1984년에 『사해(四海)를 바라보며』라는 자서전을 출간한다. 그런데 이 이민 자서전은 그 동안 외국 학계나 국내 학계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인 미국 이민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이 자서전이 그 동안 학계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은 자신의 이름과 두 자녀의 이름에 들어 있는 ‘난(蘭)’ 자를 따서 설립한 ‘오키드 팍(Orchid Park) 출판사’에서 자비로 출간하다시피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일반 서적처럼 활판으로 인쇄한 것도 아니고 IBM 타자기로 작성하여 제록스 카피로 만든, 말하자면 아마추어적인 책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1930년대 중엽 박노영과 김난혜는 1920년대 말엽 강용홀이 혼

히 그리하였듯이 뉴욕에 머물 때는 주로 허드슨 강변에 위치한 인터내셔널 하우스에 묵는다. 결혼을 하기 전 박노영의 초청으로 1934년에 뉴욕 시로 거처를 옮긴 김난혜는 이곳에서 국립디자인학교에 다닌다. 또한 이 무렵 그녀는 이 숙소 근처에 있는 뉴욕 한인 교회 행사에 참여하기도 한다. 또한 이 무렵 김난혜는 한인교회에서 열린 아시아학생회의(Asian Students' Conference)에 가끔 참석하곤 하였다. 아시아 학생들의 모임이라고는 하지만 주로 뉴욕과 그 근교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또한 회의라고 하지만 공식적인 집회라기보다는 비공식적인 모임 행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1934년 김난혜는 뉴욕 한인교회에서 열리는 이러한 모임에서 이승만을 몇 차례 걸쳐 만났다. 이 무렵 이승만은 이미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자문 위원 자격으로 《한국 학생 불리틴》의 편집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였다. 이 신문에는 미국의 저명한 철학자요 교육자인 컬럼비아대학교 교수 존 듀이(John Dewey)를 비롯하여 프랭크 카트라이트(Frank Cartwright), 토머스 홀게이트(Thomas Holgate), 호머 헐버트(Homer Hulbert) 같은 사람들도 자문 위원으로 활약하였다. 이승만은 그들과 마찬가지로 이 영자 신문이 간행되는 데 단순히 이름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었다.

김난혜에 따르면 이 모임에서 이승만은 그녀에게 호감을 보이면서 접근하였다. 이 점과 관련하여 그녀는 “그가 나한테 관심을 표명하며 나에게 데이트를 신청하였다”(Park 1984, 334-35) 하고 밝힌다. 이승만은 아마 그녀의 미모와 지성에 끌렸던 것 같다. 평양에서 태어나 만주(滿洲)에서 성장하며 그곳에서 학교를 다닌 김난혜는 다시 조선에 돌아와 이화여전에서 영문학을 전공한다. 또한 일본 고베(神戸)대학에서 2년 동안 공부하기도 한다. 이화여전을 졸

업한 뒤 1928년 미국 로스앤젤리스 소재 캘리포니아대학교(UCLA)에 유학하여 미술을 전공하고 있던 중 박노영의 만나 지금 뉴욕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여성으로 뒷날 그녀와 결혼하는 박노영이 첫눈에 반할 정도였다.

1934년이라면 김난혜의 나이가 서른두 살, 이승만은 무려 쉰아홉 살이 되는 해이다. 이승만은 그녀보다 무려 27년 연상으로 연인보다는 차라리 아버지께 가까웠다. 그런데도 김난혜가 그의 데이트 신청을 선뜻 받아들이는 것은 그가 1910년에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독립운동가로서 워낙 유명한 인사라는 사실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김난혜는 어렸을 적부터 미국에 유학하여 서양 교육을 받고, 박사학위를 받은 한국 외교관과 결혼하여 세계 여러 나라를 두루 여행을 하며, 미국 시민권을 받아 미국에서 살고, 뒷날 자서전을 쓸 만큼 충분히 흥미롭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꿈이었다. 이 중에서 미국 유학의 꿈은 이미 성취하였고 이제 나머지 꿈만 성취하면 되었다. 그런데 이승만은 이 나머지 조건에 잘 들어맞았던 것이다.

그러나 김난혜는 처음에는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선뜻 이승만의 데이트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뒤에 가서 그 제안을 취소한다.

나는 그의 청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받아들였지만 그 뒤 그가 하와이에 머물 때 여자친구와의 과거 관계와 관련하여 로스앤젤리스 한인 사회에서 들어 온 소문, 또한 조선에 대한 그의 정치적 견해에 대한 소문을 모두 기억하였다. 그래서 나는 마음을 바꾸어 데이트를 취소하였다. (Park 1984, 334)

이 인용문에서 김난혜가 로스앤젤리스 한인 교포 사회에서 들었다는 하와이 시절 이승만의 ‘여자친구와의 과거 관계’가 과연 어

면 사건을 두고 말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이승만은 하와이를 근거지로 민족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한 독립 운동에 전념하던 1913년부터 1939년 사이에 이곳 여성과 있었던 모종의 관계를 언급하는 것 같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하여야 할 것은 이승만이 김난혜에게 데이트를 제안한 해가 바로 그가 뉴욕 클레어먼트 호텔에서 프란체스카와 결혼식을 올린 1934년이라는 점이다. 김난혜가 정확히 날짜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승만이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김난혜에게 데이트를 제안하였는지, 아니면 결혼을 한 뒤에 데이트를 제안하였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김난혜가 뉴욕에 도착한 것이 2월이었고 박노영과 약혼을 한 것이 5월인 반면, 이승만이 프란체스카와 결혼식을 올린 것이 10월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는 아마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김난혜에게 데이트를 제안한 듯하다.

결혼식을 올리기 전이든 결혼식을 올린 뒤이든 이승만은 이 무렵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프란체스카 도너(Francesca Donner)와 사귀고 있었다. 그는 1933년 스위스 제네바의 한 호텔 식당에서 우연히 합석을 하게 되어 프란체스카를 처음 만났고, 그녀의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듬해 뉴욕에서 결혼식을 올릴 만큼 서로 열렬히 사랑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승만이 김난혜한테 접근한 태도는 적어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충분히 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프란체스카는 김난혜와 비슷한 나이로 서른네 살 때인 1934년에 자신보다 25살 많은 이승만과 결혼을 하였다.

한편 위 인용문에서 김난혜가 말하는 이승만의 ‘조선에 대한 정치적 견해’가 과연 무엇인지도 정확히 알 수 없다. 물론 이 무렵 이승만은 다른 독립운동가들과 적잖이 갈등을 빚고 있어 그의 정치적 견해를 미루어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1908년 3월

23일 장인환(張寅煥)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고종 황제의 외교 담당 자문역을 맡으면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에게 정보를 제공하던 미국 외교관 더럼 화이트 스티븐스(Durham White Stevens)를 암살한다. 이때 미국 한인 사회는 이 무렵 미국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이승만에게 장인환을 위하여 재판 과정에서 통역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러나 이승만은 논문 집필로 바쁘다는 핑계와 함께 미국인 살해범과는 어떠한 일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그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장인환은 그의 대의명분을 믿어 준 미국인 변호사 덕분에 가까스로 교수형과 폭도의 사형(私刑)을 모면하고 짧은 형기를 마치고 석방될 수 있었다.

또한 이승만은 박용만을 비롯하여 김구와 안창호 등과도 적잖이 갈등을 빚기도 한다. 1914년 하와이에서 군사력을 키우며 일본 제국주의에 맞설 무력 독립을 계획하고 있던 박용만은 미국 유학을 마친 뒤 로스엔젤리스에 머물고 있던 이승만을 하와이에 초청한다. 이승만은 하와이에서 잡지 《태평양잡지》를 창간하여 한국이 독립하려면 서구 열강, 특히 미국 정부와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외교 방식을 택하여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펴며 교포 사회에 독립 정신을 고취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주도권 싸움으로 국민회(國民會)를 분열시키고, 따로 좌파 세력을 규합하여 동지회(同志會)를 결성함으로써 무장 투쟁론을 주장하던 박용만 등과 대립하였다. 안창호의 신민회(新民會)가 중심이 되어 조직한 대한국민회(大韓國民會)와도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이승만은 1919년 기미독립운동 뒤 국내에서 조직된 한성 임시정부와 상하이에서 조직된 임시정부에서 각각 최고책임자인 집정관총재와 국무총리로 추대된다. 그러나 미국 워싱턴에 구미위원부(歐美委員部)를 설치하고 위원장이 되어 스스로 대통령으로 행세하면서 점차 카리스마적인 성격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는 무장 투쟁을 주장하는 임시정부 내부의 무단파(武斷派)로부터 불신을 받고 1921년 상하이 임시정부 의정원에서 쫓겨난다. 1925년 한국 임시정부가 이승만을 불신임하였는데도 이때부터 1945년까지 이승만은 마치 미국에서 자신이 한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대표자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였다.

1935년 5월 뉴욕에서 박노영과 결혼한 김난혜는 이승만의 제안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힌다. “결국 이승만과의 데이트를 취소할 때 나는 아주 현명한 결정을 하였다”(Kim 1984, 335) 하고 밝힌다. 뒷날 박노영은 이 사건을 두고 “만약 당신이 이승만과 데이트를 하고 그와 결혼하였다면 지금쯤 당신은 한국의 영부인이 되어 궁궐 같은 집에서 살고 있을 거요”(Park 1984, 334) 하고 자주 농담을 하였다. 이렇게 남편이 농담할 때마다 김난혜는 그와 함께 크게 웃곤 하였다고 밝힌다.

6. 피터 현의 이승만 비판

김난혜보다 4년 뒤에 태어난 피터 현은 한국에서 중국에 건너가 어린 시절을 보내고 다시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그녀와 서로 비슷하다. 또한 두 사람은 미국에서 화가나 연극배우 같은 예술가로 활약한다는 점에서도 서로 닮아 있다. 그러나 김난혜가 주로 여성과 관련한 도덕성의 관점에서 이승만을 평가한다면, 피터 현은 이승만의 정치적 행보를 문제 삼는다. 목사 신분으로 기미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평화회의의 주창자인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윌슨(Theodore Wilson)과 평화회의에 독립 청원서를 보내 한국 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현순의 장남인 피터 현은 어

린 시절부터 부친 옆에서 직접 독립운동을 지켜보았다. 그러므로 이승만에 대한 피터 현의 평가는 비교적 경험에서 비롯한 객관적 평가라고 할 수 있다.

피터 현이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기 전 상하이 임시정부가 설립되었다. 1919년 4월 의정원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민주공화제를 골간으로 하는 임시 헌장을 채택한 뒤 선거를 통하여 국무원을 구성하였다. 행정수반인 국무총리에 이승만을 추대하고 내무총장에 안창호, 외무총장에 김규식, 군무총장에 이동휘(李東輝), 재무총장에 최재형(崔載榮), 법무총장에 이시영, 교통총장에 문창범(文昌範) 등 6부의 총장을 임명한 뒤 4월 13일 정부 수립을 선포하였다. 피터 현의 부친 현순은 제1회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 회의에 참여하였고 제2회 의정원 회의에 참석하여 임시정부 외무위원에 선임되었으며 다시 내무차장으로 선임되었다.

이 무렵 피터 현은 비밀 조직인 ‘소년 홍사단’에 해당하는 한국 청년아카데미(Young Korean Academy)에 가입하는가 하면, 몽양(夢陽) 여운형(呂運亨)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이 민족정신이 투철한 한국인 후세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한 인성학교(人成學校)에서 한국어와 지리 그리고 역사 등을 배우면서 애국심을 기른다. 이 점과 관련하여 피터 현은 “상하이 인성학교에서 2년과 한국 예술과 역사 공부로 말미암아 나는 진정한 한국인으로 다시 태어났다. 즉 나는 애국심과 자부심을 지니게 되었으며 일본 지배자 밑에서 한국에서 지낸 생활을 더 이상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Hyun 1986, 125) 하고 밝힌다.

이승만에 대한 피터 현의 평가는 그를 잘 모르던 시절에는 긍정적이었다가 점차 판단이 바뀌기 시작한다. 중국에 건너오기 전 한국에 살 때 피터 현은 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이승만이 “애국자일뿐더러 위대한 학자로서의 이미지를 불러일으켰

다”(Hyun 1986, 152) 하고 지적한다. 또한 “그의 이름에는 마술적인 느낌이 풍겼으며, 그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숭배와 존경이라는 마술에 걸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Hyun 1986, 152) 하고 밝힌다. 이승만의 좋은 평판에 대하여 피터 현은 1896년 서재필이 설립한 독립협회(獨立協會)에서 할아버지 현제창(玄濟昶)과 함께 일하다가 감옥에 간헐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피터 현은 상하이에서 성장하면서 이승만의 실체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면서 환멸을 느낀다. 피터 현에 따르면 현순은 1920년 5월 한국위원회(Korean Commission)의 책임자로 임명받는다. 1919년 8월 워싱턴에서 발족한 이 위원회는 이해 9월 ‘임시정부 구미외교위원부’라는 이름으로 개칭되었으며 프랑스 파리에 설치된 파리 대표부 등을 관할하여 미국과 유럽에 대한 외교 업무와 임시정부의 대변 활동을 하였다. 1919년 8월 초대 위원장에 김규식이 선출되었으며, 구미외교위원부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승만이 위원장에 선출되었다. 이 점과 관련하여 피터 현은 “이상하게도 부친의 공식적인 임명장이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이승만 박사의 서명이 적힌 상태로 왔다”(Hyun 1986, 151) 하고 밝힌다.

도대체 왜 그럴까? 임시정부는 이승만을 국무위원에 임명하고 그에게 국무총리의 자리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대통령으로 알려지기를 훨씬 더 좋아하였고, 미국 관리들과 접촉하는 데에서는 물론이고 미국 본토와 하와이에 살고 있는 모든 한국인들에 그렇게 대통령으로 행세하였다. 이승만은 “열악한 중국의 생활 조건”을 두려워한 나머지 상하이에 가서 혁명 지도자들과 합세하기를 거부하였다. (Hyun 1986, 151)

이 인용문에서 피터 현이 이승만이 상하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로 임명되었는데도 미국에서 대통령으로 행세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승만은 1919년 4월에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총리에 선임되었지만 여전히 하와이에서 살고 있었다. 1920년 12월에 마지못하여 처음으로 상하이에 도착하여 임시정부에 들어가지만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아 이듬해 5월 다시 하와이로 건너가고 만다. 이승만은 임시정부의 직제에도 없는 대통령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안창호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과 대립하였으며, 1921년 이후에는 임시정부가 있는 상하이에 오지도 않았다. 1925년 이승만은 미국에 위임통치를 청원하였다는 이유로 임시정부로부터 탄핵을 당하였다. 그의 독단적인 정치 활동은 임시정부와 적잖이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대표적인 홍사단 계열로 이승만에 맞서 미국에서 안창호를 도와 독립 운동을 한 곽림대(郭林大)는 회고록 『못 잊어 화려강산』에서 피터 현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상하이 임시정부와는 별도로 한성 임시정부에서 내각을 선임하면서 이승만을 집정관총재로, 이동휘를 국무총리로 임명하였다. 이승만이 집정관총재로 임명된 것과 관련하여 곽림대는 “그는 언제든지 일을 하기보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고 감행하는 인물이었다”(1973, 134) 하고 밝힌다. 그러면서 “집정관총재를 영어로 번역하면 ‘President’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 즉시로 그는 대통령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1973, 135) 하고 적는다.

또한 위 인용문에서 이승만이 “열악한 중국의 생활 조건”을 빙자하여 상하이 임시정부와 합세하지 않으려고 하였다는 마지막 문장도 찬찬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적지 않은 역사가들이 이승만이 단일하게 독립운동을 하였다고 지적해 왔다. 이 점과 관련하여 피터 현은 “동포들은 한국과 만주에서 일본인들과 생사

를 걸고 투쟁하고 있는 동안 이승만은 미국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성인 생활 전체를 보냈다”(Hyun 1986, 151) 하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승만을 임시정부의 우두머리로 임명하였단 말인가?”(Hyun 1986, 151) 하고 묻는다. 그 이유에 대하여 피터 현은 이승만이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그곳에서 살면서 누구보다도 미국 정계에 밝아 조국 독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그릇된 것으로 실수였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한다.

[이승만을 국무총리에 임명한 임시정부 관계자들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것은 이승만의 극도의 아욕(我慾), 맹렬한 개인적 야망, 그리고 그가 모든 비판자들을 잔인하고도 가차 없이 다루는 방법이었다. 그들은 이승만이 자신의 성(姓)을 로마자로 ‘R-H-E-E’로 표기하는 데에서도 그의 성격을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의 성은 조선조의 마지막 왕의 성을 포함하여 한국에서 가장 흔한 성에 속하며 음성적으로 ‘L-E-E’로 표기한다. 그런데도 그는 다른 모든 한국인과 구별 짓기 위하여 ‘R-H-E-E’로 표기하기로 선택하였다. (Hyun 1986, 152)

이승만이 과연 자신을 다른 모든 한국인과 구별 지으려고 자신의 성을 유별나게 ‘R-H-E-E’로 표기하였는지는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어찌 되었든 피터 현은 『만세!』의 전반부에서는 예의를 갖추어 깎듯이 ‘이승만 박사’라는 칭호를 사용하다가 후반부에 와서는 ‘박사’라는 경칭을 생략하고 ‘이승만’ 또는 그냥 ‘이’라고만 부른다. 그러나 이승만이 “극도의 아욕(我慾), 맹렬한 개인적 야망”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경우를 보여 주는 좋은 예로 피터 현은 이승만이 미국 교포들을 상대로 공채를 발행한 사실을 든다. 이승만의 명의로 발행된 이 공채는 연리 6퍼센트에 미국이

한국 정부를 승인한 1년 뒤에 상환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이승만은 미주와 하와이는 물론이고 멕시코·쿠바·칠레·캐나다 등에 있는 교포들에게 이 공채를 팔아 1921년까지 무려 8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터 현은 이 공채가 휴지 조각으로 전락하였다고 밝힌다.

또한 자신을 비판하거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잔인하고도 가차 없이” 다루었다는 피터 현의 지적도 사실과 부합된다. 해방 직후 피터 현은 미군정 시절 미군의 연락장교로 한국에 파견되어 미국 대표들과 한국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서 정책의 토의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런데 이때 그는 예상한 대로 이승만이 “미국의 총애를 받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Hyun 1995, 238). 또한 이승만이 미군청의 비호 아래 반공을 무기로 삼아 정적(政敵)들을 탄압하고 심지어 암살한다는 사실도 깨닫는다. 이승만에 대하여 적잖이 실망한 그는 이 무렵 김구와 여운형 그리고 상하이에서 소년 시절을 보낼 적에 존경해 마지않던 청년 혁명가 박헌영(朴憲永)을 만난다. 남로당의 대표적인 인물인 박헌영은 그에게 “미국에는 우리의 대의명분을 변호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일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 미국에 돌아가서 우리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일해 달라”(Hyun 1995, 239) 하고 부탁한다. 이렇게 민족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을 만난 일이 미군 정보부에 알려져 피터 현은 결국 한국에서 추방당하였다. 얼마 뒤 김구와 여운형은 암살되었고, 이승만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들을 암살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왔던 것이다.

7. 마거릿 배가 전해들은 이승만의 정치 야욕

마거릿 배는 피터 현처럼 하와이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란 한국계 미국 이민 자서전 작가이다. 1898년에 출간한 마거릿의 이민 자서전 『두 이민의 꿈』은 이민자로서 미국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승만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취급하고 있어 사료로서의 가치도 크다. 마거릿의 아버지 권도인은 일찍이 1905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로 이주하였고, 그의 어머니 이희경(본명은 이금례)은 이른바 ‘사진신부’로 1912년에 하와이에 건너왔다. 특히 마거릿의 어머니 이희경은 미국 장로교 선교사가 대구에 세운 명신(明信)여학교를 제1회 졸업생으로 하와이에 건너와서는 하와이 한인 감리교회와 영남부인회에서 활약하였다. 그녀는 1918년에 귀국하여 서울에서 벌어진 기미독립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되어 1년 가까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다.

그런데 이희경이 하와이에서 이민자로서 살면서 이승만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다지 곱지 않다. 그녀에게 이승만은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운 배은망덕한 사람이요 권모술수가 능한 정치가에 지나지 않는다. 이승만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영남부인회의 한 회원이 3·1 운동에 참가한 뒤 옥고를 치르고 하와이에 도착한 이희경에게 전해주는 소식에서 단적으로 엿볼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지도자를 잃었습니다.—당신도 기억하겠지만, 우리 모두가 그토록 사랑하던 분, 박용만 말이지요. 그분은 주지사에 의하여 추방당했어요. 아마 상하이에 건너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감리교회도 분열이 되었습니다. 교인 중 절반이 이승만이 설교를 하는 교회로 떠나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 해방을 위하여 대한인국민회에 쏟아 부은 그 돈 말이에요.—도대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말들만 많아요! 또한 싸움질만 해대고요!” (Pai 1989, 37)

위 인용문을 보면 이 무렵 하와이 교민들이 이승만과 박용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교민들은 이승만보다는 박용만을 애국자로 훨씬 더 존경하였다. 마거릿 배에 따르면 교민 중에는 아들을 낳으면 박용만의 이름을 따서 짓기 일쑤였다. 1913년 하와이에 도착한 박용만은 미 본토에 머물 무렵 그가 주장하던 의무금 제도와 자치 제도를 하와이에서도 실시하고, 같은 해 5월에는 하와이 정부로부터 특별 경찰권을 승인받아 하와이 각 섬에 대한 인국민회 경찰부장을 설치하여 한인 자치제를 확립함으로써 해외 한인을 지배하려는 일본 정부의 간섭을 배제한다. 또한 국민개병을 통한 국권 회복을 실현하려고 1914년 6월 미국 군대를 모방한 근대적 군사 조직인 대조선국민군단(大朝鮮國民軍團)을 창설하고 둔병제식 훈련 제도를 도입하여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한 전담부대로 성장시킨다.

또한 1913년 2월 박용만은 하와이 한인들의 교육과 출판 사업을 관장하도록 한국에서부터 잘 알고 지내던 이승만을 초빙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승만은 하와이 교민 사회에서 그렇게 호의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였다. 마거릿 배는 “이승만은 자신의 지도력을 과시하려고 은밀히 노력하였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야심—즉 가장 지지를 많이 받는 한국의 지도자가 되려는 야망을 성취하려고 사용하곤 한 교활하고 교묘한 방법 때문에 사람들한테서 경멸을 받았다”(Pai 1989, 39) 하고 밝힌다.

앞에서 이미 밝혔듯이 이승만은 하와이 한인 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1915년 대한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를 장악하고 박용만 계열의 대의원을 구타하는 등 그에 대한 음해 공작과 테러 행위를 자행한다. 이 일을 계기로 그가 하와이 정부로부터 승인받

은 특별 경찰권은 취소당하여 하와이 한인 사회의 자치권은 상실되고, 대조선국민군단도 1916년 농장주의 압력으로 계약이 취소되어 문은 닫게 되는 등 이후 하와이 한인 사회는 분열로 치달는다. 위 인용문에서도 드러나 있듯이 루시어스 핑크햄(Lucius E. Pinkham) 주지사는 박용만을 하와이에서 추방하기에 이른다. 이로써 이승만은 하와이에 도착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박용만을 물리치고 명실공히 대한인국민회(KNA)의 우두머리로 자리를 굳힌다.

하와이에서 추방당하기 이전 박용만은 대한인국민회에서 쫓겨난 뒤 1919년 3월 이승만에 맞서 ‘독립단’을 설립한다. 이 단체에 소속된 회원은 대부분이 한인 감리교회 교인이었다. 그러자 이승만은 이에 맞서 ‘동지회’라는 단체를 조직한다. 또한 박용만은 이승만이 창간한 《태평양잡지》에 맞서 주간지 《태평양타임스》를 창간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민들은 적잖이 혼란을 겪는다. 마거릿 배는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독립을 쟁취하고, 또 누구를 지도자로 따라야 할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Pai 1989, 37) 하고 한탄한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은 박용만보다는 이승만한테로 돌아간다.

한편 위 인용문에서 한인 감리교회가 분열되고 교인 절반가량이 이승만이 운영하는 교회로 떠나갔다는 언급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민자의 자녀 교육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던 이승만은 하와이 감리교단의 청을 받아들여 이 교단에서 운영하는 한국학교의 교장을 맡는다. 그러나 그는 사내아이들만 받아들여기로 한 감리교단의 결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여자아이들도 받아들여 물의를 빚는다. 1916년 이승만은 마침내 이 학교의 교장직을 사임하고 감리교단과의 관련도 모두 끊는다. 교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승만은 독자적으로 한인 기독교교회를 창립하기에 이른다.

마거릿 배의 부모는 여전히 하와이 감리교회에 충실할 뿐만 아

나라 중국에서 군대를 양성하고 있는 박용만에게 계속 독립자금을 보내는 등 그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조국이 일본 식민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마거릿의 부모는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다. 하와이에 이승만이 한 행동을 잘 알고 있는 그들로서는 그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마거릿의 아버지 권도인은 한국을 방문하려고 한국 정부에 비자를 신청한다. 그러나 박용만이 이끄는 독립단에서 활약하였다는 이유로 입국 신청을 거부당하는 것이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가 흔히 그러하듯이 이승만에 대한 평가도 그와 맺고 있는 이해관계에 따라 크게 엇갈린다. 이승만한테서 혜택을 입은 사람들은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가 하면, 이와는 반대로 그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은 그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마련이다. 지금까지 이승만에 대한 평가도 이러한 주관적인 판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장기 집권과 권력에 눈이 먼 독재자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그러나 이승만에 대한 좀더 객관적이고 공평한 평가는 그와 이렇다 할 이해관계가 없는 한국계 미국 이민 자서전 작가들한테서 엿볼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해 온 것처럼 한국계 미국 작가나 한국계 이민 자서전 작가들이 주로 이민 자서전에서 내린 평가는 비교적 객관적이고 균형이 잡혀 있다. 이들 작가 중에서도 간접 또는 직접으로 이승만한테서 혜택을 받은 박인덕은 그를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정치가로 평가한다. 미국 사회에서 이민자로 적응하면서 고단한 삶을 해 온 백광선도 일반 사람들의 평가를 거의 그대로 따라 이승만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파악한다. 더구나 백광선은 이승

만이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재미 교포들에게 심어주려고 노력한 긍정적 이미지를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인다.

한편 강용홀과 김난혜 그리고 피터 현은 이승만을 지나치게 권력지향적이고 독선적일 독재자일 뿐만 아니라 여성 편력이 일반적 인 도덕관념이나 윤리 규범에서 벗어난다는 점을 들어 그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어떤 면에서 강용홀과 피터 현은 박인덕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견해나 입장에 따라 굴절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김난혜의 평가는 이승만의 또 다른 성격을 밝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요컨대 한국계 미국 자서전 작가들의 평가는 이승만에 대한 종래의 평가를 보강하는 한편 그 동안 알려지지 않은 면을 새롭게 밝히는 구실을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강정숙. 1993. 「박인덕: 황국 신민이 된 여성 계몽 운동가」, 반민족문제연구소 편, 『친일파 99인』 제2권. 서울: 돌베개.
- 곽림대. 1973. 『못 잊어 화려강산: 재미 독립투쟁 반세기 비사』. 서울: 대성문화사.
- 김옥동. 2004. 『강용홀: 그의 삶과 문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근삼. 1974. 「공연 기대되는 집념의 대작」, 《문학사상》 통권16호(1월호): 252-53쪽.
- 최병현 편. 1992. 뉴욕 한인교회 역사편찬위원회 편. 『강변에 앉아 울었노라』. 서울: 깊은샘.
- Chan, Sucheng. 1990. "Preface," *Quiet Odyssey: A Pioneer Korean Woman in America*. Ed. Sucheng Chan.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Cummings, Bruce. 1997. *Korea's Place in the Sun: A Modern History*. New York: Norton.

- Editor. 1948. "Introducing Younghill Kang." *United Nations World* 2: 4 (May).
- Hyun, Peter. 1986. *Mansei!: The Making of a Korean America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_____. 1995. *In the New World: The Making of a Korean America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Kang, Younghill. 1948. "How It Feels to Be a Korean . . . in Korea." *United Nations World* 2: 4 (May): 18.
- _____. *Murder in The Royal Palace*. Unpublished typescript.
- Kunitz, Stanley. 1955. "Younghill Kang," *Twentieth Century Authoss: A Biographical Dictionary of Modern Literature, Supplement*, ed. Stanley Kunitz. New York: H. W. Wilson.
- Lee, Mary Paik. 1990. *Quiet Odyssey: A Pioneer Korean Woman in America*. Ed.
- Sucheng Chan.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Lew, Walter K. 1990. "The Late Koryo Court of Kongmin Wang as an Allegory of Post-1945 Korean Politics: A Literary and Historiographical Analysis of Younghill Kang's 'A Murder in the Royal Palace'."
- Pahk, Induk. 1954. *September Monkey*. New York: Harper & Brothers.
- _____. 1965. *The Hour of the Tiger*. New York: Harper & Row.
- Park, Lanhei Kim. 1984. *Facing Four Ways: The Autobiography of Lanhei Kim Park (Mrs. No-Yong Park)*. Ed. Chinn Callan. Oceanside: Orchid Park Press.
- Oliver, Robert T. 1955. *Syngman Rhee: The Man Behind the Myth*. New York: Dodd, Mead.
- Smith, Robert Aura. 1954. "Ambassador from Korea," *New York Times Book Review*, November 7.

Korean American Writers' Views of Syngman Rhee

KIM Wook Dong

Professor emeritus,

Department of English, College of the Humanities, Sogang University

This article attempts to explore some Korean American writers' views of Syngman Rhee, the first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hose presidency, from August 1948 to April 1960, remains very controversial, affected by Cold War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lsewhere. On the one hand, Rhee has been regarded positively as an anti-Communist who led South Korea through the Korean War. On the other hand, Rhee has been criticized as a totalitarian strongman who suppressed mercilessly any political opponents. Korean American writers in general and Korean American immigrant autobiographers in particular have had negative views of Syngman Rhee. For example, Younghill Kang, Lanhei Kim, Peter Hyun, and Margaret K. Lee, who are liberals, tend to be very critical of Rhee. They see his regime as authoritarian, corrupt and inefficient. In their opinion, Rhee's inability to work with others, as well as his lack of concern or understanding for economics, retarded the progress that the people expected. In addition, Rhee allowed either wittingly or unwittingly his supporters to resort increasingly to coercion and fraud to keep him in power, thus losing for him much of his deserved place in history. Only

Mary Paik Lee and Induk Pakk, among others, regard Rhee as the patriarch of the nation who contributed toward paving the way for the democratization of Korea.

Key Words: Syngman Rhee, biography, Korean American Immigrant, Autobiography, Korean American Literature